

지역 소식통

베스트통상, 분무기 기탁

김제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관내 기업의 운동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관내 기업의 손 소독제 기탁에 이어 27일 김제시 월촌농공단지 소재 농기계 제조업체 베스트통상(대표 조규영)은 충진식 분무기 10대를 김제시에 지정 기탁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실고 있다. 조규영 대표는 27일 김제시청 방문, 물품을 전달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산방지를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물품을 기탁한다"고 말했다. 충진식 분무기는 김제시 보건소에 전달되어 고속버스, 택시, 개인병원, 식당 등 방역이 필요한 곳에 대여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봉헌 기부를 해준 베스트통상의 선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완주군이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완주군은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식품접착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내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조치로 매장 내 일회용품이 사용 가능해지는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1796개소다. 사용가능한 품목은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었던 일회용 컵,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이번조치는 감염병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불안 가중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로나19 대응 행정력 집중

감염병과 전쟁 선포' 김제시 10개반 24시간 상황실 운영

김제시는 지난 21일 코로나와의 전쟁 선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심각 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10개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전 김제부시장은 27일 오전 1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공서, 유관기관, 경로당 등 8백여개 다중집합장소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역과 터미널, 택시와 버스 등에 매일 1~4회 방역소독, 봉남면 평사리(확진자) 마을 방역소독 후 자가격리 권고, 신천지 3개 시설은 방역소독 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차 1대, 음압텐트 1개, 음압기 1대, 열화상카메라 4대, 이동형 X선 촬영장치 2대, 손소독기 410개의 장비를 운영하며, 마스크 13만7천여장, 손소독제 1만여개, 체온계 173개, 방역·보호복 1천5백여개를 확보하여 배부하고 있다. 26일 현재 확진자 1명과 자가 및 능동감시자가 56명, 해제 7명, 이관 4명



김제시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선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심각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10개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으로 자가 및 능동감시자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 1일 2회 이상 전화통화 이상 유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신천지 신도명단 200명을 확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하여 증상 유무를 신속히 조사,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가격리 등을 통하여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김제부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확산방지가 가능하다"며 "특히 기침이나 발열이 있으면 1339나 보건소 540-4553으로 문의 해 주시고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 주실 것"으로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일반진료업무 '일시 중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김제우석병원 2곳이다. 김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공중보건과의사와 2명의 간호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며 김제우석병원 선별진료소는 2명의 간호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별진료소에는 총 152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55명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출입구 앞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립공원 금산사 매표소 입구에는 선별상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열체크를 시행하는 등 도내 최초로 선제적으로 선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에 방문 자제하기와 같은 코로나19 행동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38도 이상의 발열·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김제시 보건소(☎540-4553)로 전화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특성화고, 미래 명장 육성학교 선정

김제시가 지역산업(농생명,식품분야) 및 특성화고별 기능인력양성 특화분야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취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 명장육성 공모사업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와 덕암정보고 두 개 학교를 선정했다. 기존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3,6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3개 학교(중자산업과, 첨단시설과, 바이오식품과) 참여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교육과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첨단 농생명 산업에 필요한 미래 명장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

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덕암정보고는 3,3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조리미용과 참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교육과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조리, 미용에 필요한 미래 명장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은 "참여한 학생들이 명장육성사업을 통해 기초직업능력 및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직장 적응훈련 및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산업 및 뿌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기울인다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조기발견·초동진화체계 구축

완주군이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 "산불 발생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서는 지난 26일 2020년 김제시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심사로 대체되어 진행되었다. 영농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및 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농촌진흥 시범사업은 농촌지원활동 치유농장 육성등 38개 사업에 39억원으로 이번에 대상자가 결정된 시범사업은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촌체

합 및 농산물 가공, 생산비 절감기술 및 신제품 보급을 통한 김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계획이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제 먹거리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되는 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량 정밀점검·보수공사 진행

완주군이 관내 37개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와 정밀점검을 진행한다. 27일 완주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37개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정밀점검 예산 15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수대상 교량은 대명육교, 양화교, 용봉교, 구제제1교, 옥계교, 정산교등 6개교로 지난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과 구조물 보수 및 교면 재포장 등이 진행된다. 정밀점검은 전체 37개 교량에 대해 실시된다. 보수공사는 5월중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월중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밀점검 용역은 상반기내 과업을 완료해 보수·보강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최근 발생한 천천~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 사고와 관련 터널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도 20호선(소양~동상간)에 위치한 위봉터널에 대해서도 구조물의 상태 및 소방시설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교량은 도로시설물 중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시설물이다"며 "완주군내 시책별 대상 교량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